

클래식 선율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응원하다

김현태 기자

+

-

🖨

🔖

교계

입력 2021.10.04 18:55

호수 1604

댓글 0

보로딘오케스트라 '노을음악회'
10월4일 지리산 시암재서 공연



저녁노을 곁에 물든 지리산 자락을 배경으로 삼보사찰 천리순례 동참대중을 응원하는 클래식 선율이 울려 퍼졌다.

12인으로 구성된 보로딘심포니오케스트라가 10월4일 천리순례 숙영지인 지리산 시암재를 찾아 '현악 4중주 노을음악회'를 개최했다. 조윤숙 단장은 "불교중흥과 극난극복을 발원하며 상월선원 만행결사 천리순례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선율이 잊지 못할 가을의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구성된 보로딘오케스트라는 이날 모차르트의 세레나데 13번 G장조 K525 '한 밤의 작은 소야곡'을 시작으로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D장조 K136 '잘츠부르크 교향곡',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그 그리그의 OP40 '홀베르그 모음곡' 등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을 선사했다. 순례단은 연주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와 환호로 천리순례 응원을 위해 서울에서 찾아온 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노을음악회는 지리산 천은사(주지 대진 스님)가 기획하고 마련했다.

NH농협은행 301-0189-0372-01

KB국민은행 023537-04-004063

최신뉴스

[더보기 >](#)


선시는 함축적으로 일
러주는 인생의 사구게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연잎밥 도시락 나눔 행

근현대 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명...“역사 ...
생명나눔, 제13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개최
“매년 늘어가는 외로운 죽음”...무연고 사망자 ...
합천 해인사, 제2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웹툰 ...
대전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에치와이 초청...
가야산 해인사 원당암, 중앙절 맞아 합동 천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제4회 어린이 담마스...
어린이불자들, 요리 솜씨로 '자연아 사랑해'

연재

<

>

세심청심

차별없이 내리는 비



나의 발심수행

다라니기도 김준우(48, 법성)...



최명숙의 일상의 발견

17. 안동 봉정사 단상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개·축원으로 마무리
-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혜 스님
-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닿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0개의 댓글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무진등

마하의료회장 김정순 약사



이제열의 소리를 관하다

35. 지옥의 소리-상



많이 본 뉴스

18. 탈종교 시대와 불교 (2)
- "부처님 가피 법보시로 갇아야죠"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웰컴 세대의 새로운 가치
-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 공식 사과..."전면 재검토"
18.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개·축원으로 마무리
- 미디어오늘, 불교계 언론보도 왜곡하나
18. 종교 차별한 역대 정권의 수도권 도심 개발 - 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BS**